8년만의 KS … 광주의 밤 '후끈' … 챔스필드 '들썩'

패장 김기태 감독

"오늘 양현종 선발 … 패배 빨리 잊고 승리"

곰들의 매서운 창이 '20승' 투수 헥터에 패배를 안겼다.

KIA 타이거즈의 헥터가 2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7 KBO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백투백' 홈런에 흔들리면서 3-5 경기의 패전 투수가 됐다.

플레이오프에서 거침없이 돌아가던 두산 방망이의 위력은 여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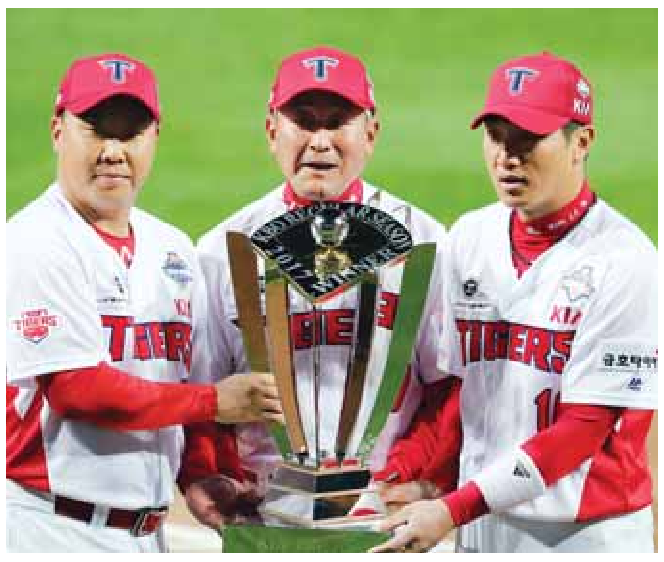
초반 마운드를 잘 이끌던 헥터가 4회 연속 볼넷으로 첫 위기를 맞았다. 안치홍의 실책까지 겹치면서 1사 만루까지 몰린 헥터는 밀어내기 볼넷으로 선취점을 내줬다.

그리고 6회 김재환의 투런과 오재일의 백투백 홈런이 이어지면서 점수는 0-5까지 벌어졌다. 오재일은 비거리 120m의 홈런으로 챔피언스필드 외야 홈런존을 때리면서 팀 승리와 함께 기아자동차의 스팅어를 경품으로 가져가게 됐다.

버나디나가 5회말 2사 1·2루에서 니퍼트를 상대로 스리런을 날리면서 반격의 기회를 만들었지만 몸이 덜 풀린 타선의 움직임이 아쉬웠다.

특히 3-5로 뒤진 8회말 선두타자 최형우의 안타와 나지완의 볼넷으로 만든 무사 1·2루 찬스에서 안치홍의 병살타와 이범호의 삼진으로 이닝이 종료되면서 승기를 내줬다.

1차전 패장이 된 김기태 감독은 "첫 경기를 지기는 했지만 좋은 타자들이 잘 쳤다. 불펜 투수들이 잘 던져준 점이 고무적이다. 양현종을 내세워서 패배를 빨리 잊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기는 했지만 좋은 투수들의 모습이 양쪽 다 보기 좋았다"고 말했다.



정규리그 우승 트로피

25일 오후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리그 한국시리즈 1차전 두산 베어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리그를 우승한 KIA 김기태 감독(가운데)과 이범호(왼쪽), 김주찬 선수가 우승트로피를 들고 있다.

8회 무사 1·2루에서 강공 작전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기 위해서 번트를 대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게임이 흘러가면서 실수도 나올 수도 있다. 그걸 줄여야 하지 않겠나. 2차전 준비 잘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시리즈 2차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좌완의 맞대결로 전개된다. KIA는 양현종이 첫 승 사냥에 나서고 두산은 장원준을 내세워 연승을 노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승 투수' 양현종 스승 칸베 코치 챔스필드 방문

특별한 경기를 위해 특별한 손님이 챔피언스필드를 찾았다.

KIA 타이거즈에서 활약했던 칸베 투수코치가 25일 챔피언스필드를 방문해 한국시리즈 1차전을 관람했다. 칸베 코치는 '20승 투수' 양현종을 키운 스승으로 유명하다.

그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KIA 투수들을 조련하면서 마운드 강화에 기여했다. 특히 같은 좌완인 양현종이 칸베 코치의 지도 속에 많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팀을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하게 됐다.

칸베 코치가 건강상의 문제로 2009시즌을 끝으로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양현종은 이후에도 스승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각별한 인연을 이어왔다.

스승에 대한 고마움을 종종 표현했던 양현종은 지난 7월 통산 100승에 성공한 뒤에도 조범현 감독과 칸베 코치의 이름을 가장 먼저 언급하기도 했다.

2009년 우승팀 투수 코치로 뜨거운 가을을 보냈던 칸베 코치는 25일 8년 만의 한국시리즈 현장을 찾아 관중석에서 KIA 선수들과 함께했다. 양현종의 초청으로 이뤄진 광주 방문이었다. 이날 양현종은 점심으로 맛있는 한정식을 대접하면서 스승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칸베 코치는 "(양현종이 나오는) 내일이 메인이다(웃음). 양현종은 좋은 것을 많이 가진 투수였다. 20승 투수로 성장한 것을

양현종과 칸베 코치

보니 뿌듯하다. 인터넷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연락을 하고 있다. 20승을 한 뒤에도 전화가 왔다. KIA가 우승할 수 있기를 빌겠다"고 환하게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의 미래' 최원준·이정훈 꿈같은 '꿈의 무대'

'호랑이 군단'의 미래 최원준과 이정훈이 꿈처럼 꿈의 무대에 초대를 받았다.

한국시리즈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다. 정규시즌 1위 KIA는 8년 만에 안방에서 한국시리즈를 치르게 됐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 올 시즌을 보낸 선수 중 30명 만이 한국시리즈 엔트리 합류라는 영광을 누렸다.

이 중 내야수 최원준과 포수 이정훈은 '막판 뒤집기'로 30인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면서 기쁨이 더 컸다.

최원준은 부상 때문에 빠졌던 시즌 초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간을 1군에서 보냈다. 하지만 지난 21일 시작된 합숙 훈련 33인의 명단에서 이름이 제외되면서 '가을 잔치'의 꿈을 포기했었다. 2군에서 시즌을 마무리하고 있던 '막내' 최원준은 그러나 최종 30인에 포함되면서 마지막까지 선배들과 동행을 하게 됐다.

최원준은 "연습경기에서도 좋지 못했고 너무 못 치고 있었다. 큰 대회라 선배님들, 잘하는 선배들이 가시는 게 맞다는 생각도 했다"며 "2군에서 운동을 열심히 했다. 내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더 많이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기회를 얻었다. 경기에 나갈 일은 많이 없을 거지만 나가게 되면 팀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상황에 맞게 잘 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정훈에게는 더 극적인 가을이다. 대졸 신인인 이정훈은 감기몸살에 걸린 한승택을 대신해 지난 4월 잠깐 엔트리에 등록돼 4경기를 뛰었다. 이후 이정훈은 백용환이 부상에서 회복하면서 지난 9월 확대 엔트리 때도 1군에 합류하지 못했다.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진행됐던 자체 홍백전이 이정훈에게는 천금 같은 기회가 됐다. 백용환이 기대에는 부족했던 타격 속에 송구에서 어려움을 겪는 동안 이정훈은 자신감 있는 플레이로 눈도장을 찍었다.

이정훈은 "2군 감독님과 코치님들이 연습경기 할 때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악착같이 하라고 하셨다. 예비 엔트리에 들기도 했지만 큰 기대는 안 했다. 어머니께서도 그것만으로도 잘했다고 해주셨는데 한국시리즈 엔트리까지 들었다. 부모님께서 많이 기뻐하셨다"며 "올 시즌 운이 좋았다. 올 시즌 1군, 퓨처스 올스타 목표를 이뤘고 아시아야구선수권 대회에 나갔다. 퓨처스 올스타에서 우수타자상도 받았는데 야구하면서 처음 받는 상이었다. 긴장하지 않고 침착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버나디나 추격의 3점포

25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리그 한국시리즈 1차전 두산 베어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5회말 2사 1, 2루 상황 KIA 버나디나가 3점 홈런을 치고 환호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덕아웃 T 톡톡

임기영 "세현이 형 4차전에 나오세요" … 김세현 "좋은 생각. 자주 만나자"

이종범 해설위원 "대통령? 많이 만났지. 청와대 만찬 가고 훈장도 있어요"

▲세현이 형은 4차전에 = 첫 한국시리즈가 재미있는 임기영이다. 전역 후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임기영은 이번 시리즈 4선발로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원래 크게 긴장을 하지 않는 성격인 데다 아직 등판 날짜가 많이 남은 만큼 임기영은 여유 있는 표정으로 한국시리즈를 시작했다. 임기영은 "일단 오늘은 불펜에서 대기하는 데 나갈 일은 없을 것 같다. 앞에 나온 선발들이 이닝을 많이 소화해줄 것이다. 팀이 3연승을 하고 등판을 하면 좋겠다. (김)세현이 형은 4차전에나 나와서 (세이브를) 해주면 좋겠다"고 웃었다.

▲시리즈 때는 그러지 말자 = 임기영의 '4차전 등판 발언'에 "좋은 생각이다"며 웃으며 대화를 나눈 김세현. 임기영이 "내 뒤에 (김)윤동이가 나오고 형이 남은 이닝을 책임지면 좋겠다. 그런데 윤동이가 내 경기를 날려버린 적이 있어서 걱정이다"고 말하자 "나도 네 등판 경기에서 두 번 정도 못 했다. 우리 시리즈 때는 그러지 말자"고 서로를 격려했다. 김세현은 새로운 팀에서 맞은 한국시리즈에 대해서는 "크게 긴장은 되지 않는다. 시범경기를 하는 느낌이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 집중해서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해 왔으니까 = 고효준이 적에서 동료로 우승에 도전하고 있다. 그는 KIA가 'V10'을 이룬 2009년 SK 투수로 KIA를 상대했었다. 지난해 트레이드를 통해 KIA로 온 고효준은 이번에는 마운드의 고참 선수로 'V11'에 도전한다. 고효준은 "플레이오프 때 두산이 정말 잘 치더라. 그래도 두산에 좋은 모습을 보여와서 자신 있게 할 생각이다. 자신감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중요하다. 피날레, 이걸 하기 위해서 (올 시즌) 해왔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후회하지 말고 해보자고 했다"며 언급했다.

▲훈장도 있어 = 한국시리즈 1차전이 열린 24일 화제의 인물은 '깜짝 시구자'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에 대한 시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종범 MBC 해설위원이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이 위원은 "대통령? 많이 만났지. 국제 대회 끝나고 청와대 만찬에 초청 됐다. 대통령 훈장도 있다"며 미소를 지었다.

▲치홍이는 더 긴장될 것인데 = 3년 연속 치르는 한국시리즈지만 여전히 "긴장이 된다"는 광주일고 출신의 두산 내야수 허경민. 그는 25일 경기를 앞두고 "고향에서 한국시리즈를 하게 돼서 기분이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힌 뒤 "앞선 한국시리즈와 긴장되는 것은 똑같다. 기대치가 크니까 즐긴다고 하지만 즐길 수가 없다. 그래도 부담은 쫓기는 KIA가 더 클 것이다. 내가 이렇게 긴장되는 데 (안)치홍은 더 긴장 될 것이다"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안치홍과 허경민은 청소년대표 시절을 함께 한 친구사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